

“연대하는 마음”...정유미·공유가 전할 진심+공감

100만 부 이상 판매고 올린 원작 소설 영화 ‘82년생 김지영’

1982년 태어나 2019년 오늘 살아가는 주인공 현실적 이야기

배우 정유미·공유가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82년생 김지영’으로 돌아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평범한 이야기로 선사할 공감대가 통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82년생 김지영’ (감독 김도영) 제작보고회가 열려 정유미, 공유, 김도영 감독이 참석했다.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 태어나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김지영(정유미 분)의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조남주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다.

특히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원작은 사회적 화두를 던져 영화화 소식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연출을 맡은 김도영 감독은 이날 “저도 두 아이 엄마고, 누군가

의 딸이고,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과 접치는 부분이 많았고 공감이 갔다. 그리고 원작이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제 첫 장편 데뷔작으로서 원작이 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영화적 가치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제 생각엔 할 만한 이야기고 해야 하는 이야기고, 상업 영화 틀 안에서 제작되는 건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연출을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염력’에 이어 1년 만에 돌아온 정유미가 맡은 김지영은 결혼과 출산 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자신도 몰랐던 모습과 아픔을 알아가는 현실적인 캐릭터다.

‘부산행’ 밀정 이후 3년여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공유는 김지영 남편 대현 역을 맡아 지영을

걱정하고 지켜보는 모습을 그려낸다.

정유미는 역할에 대해 “결혼도 안 했고 육아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공감보다는 주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외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각났다. 저를 다시 보게 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다”고 전했다.

공유는 선택 이유에 대해 “대현의 캐릭터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시나리오가 더 끌렸던 것 같다. 대현의 캐릭터는, 다른 배우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캐릭터를 선택할 때 저와 닮은 점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찾는다. 제가 대현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부분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고민하는데 소심할 수도 있는 배려심이 깔려있는 인물이라 생각한다. 제 자랑같지만 저와 비슷해서 공감이 갔고 이해를 하려는 모습을 가진 인물이다. 동질감도 들고 내가 대현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82년생 김지영’은 영화 제작 소식부터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악플 및 평점 테러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담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유미는 “큰 부담 없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영화를 잘 만들어서 이 결과물을 다르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유 역시 “책과 시나리오를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방해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관점의 차이는 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찍었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개봉 예정.



배우 정유미, 공유(오른쪽)가 30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82년생 김지영’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100만부 판매를 넘긴 조남주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뉴스1

‘복면가왕’ 규현 “최초 男들 가왕 영광... ‘혜야’ 故종현 위한 무대”

“내 목소리만으로 노래 부를 수 있어 행복”



지난 3개월 동안 MBC ‘복면가왕’의 106대, 107대, 108대, 109대, 110대 가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요정 지니’가 지난 달 29일 방송을 끝으로 복면을 벗었다. 그는 바로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으로, MBC를 통해 가왕 자리를 유지했던 소감을 전했다.

▶7표 차로 아쉽게 6연승에 실패했는데, 솔직한 심정은?

- 솔직히 좀 시원섭섭해요. 제 목소리만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면가왕’을 통해 무대에서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고 노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그동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노래 들으러 출근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스케줄이 없어져서 조금 아쉬워요.

▶‘복면가왕’ 최초 남자 아이돌 가왕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 소감은?

- ‘최초 남자아이돌 가왕’ 타이틀 영광이죠. 요즘에 실력과 아이돌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제 어떤 후배 가수가 어떤 멋진 무대를 꾸밀지 기대가 되고 새로운 남자아이돌 가왕이 나오길 항상 응원할게요.

▶불렀던 곡들이 다 화제가 됐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 먼저, 불렀던 곡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가왕 무대에서 불렀던 ‘혜야’라는 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종현이를 위해 꼭 부르고 싶었던 곡이었거든요. 마지막 방어진 무대가 됐지만, 그 곡을 부르고 가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요정 지니’로 5연승을 하면서 많은 가왕 도전자분들과 대결을 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자는?

- 정말 영광스럽게도 최성수

선생님, 권인하 선생님 등등 쟁쟁한 대선배님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선배님들과 무대를 하면서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은 추억이요. 모든 도전자분들의 무대가 기억에 남아요. 그중에서 굳이 뽑자면 제 노래 ‘광화문에서’를 불러주셨던 가수 앤씨 아님. 그때가 제 첫 방어진 날이었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실까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익숙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 뭐지?’ 했는데 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노래를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 곧 10월 중순에 슈퍼주니어 9집 앨범이 나와요. 슈퍼주니어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온전한 제 목소리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캠핑클럽’ 성유리 “새로운 경험한 값진 시간, 잊지 못할 것” 종영 소감

핑크 성유리가 JTBC ‘캠핑클럽’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성유리는 소속사를 통해 “이전에는 멤버들과 캠핑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핑클로 무대에 다시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하기만 한 일이었다. 하지만 ‘캠핑클럽’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실현되었고, 새로운 경험을 한 값진 시간이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캠핑 여행부터 무대까지 매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 만나든 항상 변함없는 멤버 언니들도 고맙고,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울고 웃어준 팬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순간들 잘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뵈 테니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지난달 29일 종영한 ‘캠핑클럽’에서 성유리는 명불허전 예능감,



따뜻한 인간미와 출구 없는 매력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는 멤버들과 있을 때 자연스럽게 물어 나오는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으며, 멤버들에게 짓궂은 장난도 치지만 그들을 모두 ‘막내 바보’로 만들 정도로 배려가 몸에 밴 선한 성품으로 대중들의 호감 지수를 높였다.

한편 성유리는 ‘캠핑클럽’ 종영 이후 그 사이 밀린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